

postcard



기립하시오,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오 “모든 이들이 깊은 마음속에선 세상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무라카미 하루키, 『1Q84』) 좀비, 외계인, 로봇 그리고 환경 문제로 야기된 재해까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종말’은 오늘날 빈번하게 출몰하는 주제다. 그러나 유행의 배경엔, 절망을 기어코 이겨내는 엔딩이 주는 감동의 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이 빌어먹을 세상의 종말을 바란다. 우주의 일까지도 계산해 내는 세상에서 배가 가라앉는 일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고공에서 외로이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할 때, 전쟁은 인류사 내내 지속되고 그림에도 탐욕이 멈추지 않을 때, 종말의 극복은 외려 절망을 안겨준다. 그래도 희망을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가두고 싶다. 희망이란 말이 남아있어 세상은 폐허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 어느 시처럼 너에게도 절망을 주겠다. 희망보다 소중한 절망을 주겠다. 절망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 세상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송두리째 ‘아니’라고 말할 누군가를 기다리겠다. 권병준이 <간절한 생각들: 생태-젠더-공산>(12. 9~26 대안공간루프)에서 선보인 <오체투지(五體投地) 사다리봇>은 완전하고 완결한 절망을 선사한다. 우리는 고도화된 기계가 언젠가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킬까 염려하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물들의 의회? 그건 헛소리다. 도리어 인간을 노예로 취급하는 자본은 기계마저 노예로 만들었다. AI 기술로 감정을 부여받았으나 노예가 된 기계는 이제 인간보다 더 절실하게 흡소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권리를 지켜달라고 ‘오체투지’에 나선다. 자본주의를 종말시키지 않고서,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따위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희망가를 믿는다면, 세상은 작품이 보여주듯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희망이 존재한다면 지금의 절망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움푹 가라앉는 것으로써 온다고 믿으려 한다. 기획자 양지운은 “새로운 사회는 단지 아름다운 이상을 노래하고 휴머니즘을 외치는 일로 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국민 통합과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 일은 이상과 휴머니즘에 걸맞은 일. 이제 나는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싶다.